살아 움직이는 부처님… '미디어 아트' 괘불탱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 '괘불, 승려 초상' 영상 공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 왼쪽은 부석사 괘불을 미디어아트로 재현한 모습. 사진 오른쪽은 불교조각실에서 바라본 괘불 미디어아트. 12m 대형 부처님의 백호 광명이 관람객들을 비추고 있다.

부처님의 설법을 담아낸 대형불화 괘불이 생생하게 움직인다. 부처님의 백호(白毫) 광명이 관람객들에게 비춰진다. 한국만의 독특한 불화인 괘불이 3D 초대형 미디어아트로 재현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은 "오는 2월부터 괘불과 승려 초상을 주제로 한 디지털 영상을 상설전시관 2층 불교회화실에서 새롭게 선보인다"고 1월 28일 밝혔다.

초대형 불교미디어아트 '첫 선'

공개된 디지털 영상이 상영되는 곳은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의 괘불 전시 공간이다. 괘불은 조선시대에 야외에서 불교 의식을 거행할 때 걸었던 대형 불화로, 다양한 불교 의식과 함께 오늘날까지 계승돼 한국 불교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높이가 12.7m에 달하는 이 전시 공간은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괘불이 전시돼 왔으나 전시가 끝나면 비어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괘불 전시 공간에 실제 괘불이 소개되지 않는 기간 동안 새롭게 제작된 미디어아트로 괘불을 만나게 된다"면서 "높이 12m, 폭 6m의 6K 초대형 괘불 미디어아트를 상설전시관에 최초로 상영함으로써 디지털시대 박물관 관람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2m의 괘불 전시 공간에
높이 12m, 폭 6m 크기로
미디어 아트 괘불 재현해

서산·신겸 진영 디지털화
관람객에게 이야기 건네고
고승들 서로 대화 '진풍경'

초대형 불교미디어아트는 110점 이상의 현전하는 괘불 가운데 서로 다른 형식을 보이는 3점의 괘불을 기반하여 제작됐다. 모본이 된 괘불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부석사 괘불'을 비롯해 국보 제301호 '화엄사 괘불' 보물 제1270호 '은해사 괘불'이다.

세로로 긴 형태의 괘불을 미디어아트로 옮기기 위해 여러 영상 전문가와 제작 방향을 논의했다. 괘불의 투명하고 다채로운 색감을 재현하며 애니메이션과 3D모션그래픽을 가미해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재탄생시켰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관람객은 12m의 대형 스크린에 투사된 2D와 3D의 불교 세계를 보며 원작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압도적인 시각적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다"며 "개별 괘불에 대한 정보는 이번에 함께 제작한 미디어패널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옛 고승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기존 불교회화실 휴게공간에는 실제 과거에 존재했던 고승과 현재 관람객이 영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됐다. 실시간 인식 센서로 관람객이 다가오면 화면 속 승려 진영이 반응하며 관람객에게 대화를 건네고, 영상 속 승려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진귀한 풍경이 펼쳐진다.

고승 진영 영상은 조선 불교 부흥의 중심인 서산대사 휴정(休靜, 1520~1604)과 불화승으로 활동한 신겸(信謙,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활동) 스님의 진영 2점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움직이는 고승 진영을 제작하기 위해 원작을 바탕으로 3D 모델을 만들었고, 모션 캡쳐 기술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했다. 진영의 회화적인 느낌은 아트 텍스쳐 기법으로 위화감 없이 4K 모니터로 전달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아트디렉터로 김현석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윤정원 상명대 디지털만화영상전공 교수가 참여했으며, 제작사 ㈜지노드(대표 이재선)가 불교회화에 최신 CG기술을 융합시켰다. 디자인적 모션그래픽과 역동적인 카메라워크(Camerawork)를 가미해 현대적인 감각으로 불교회화를 해석하고 새로운 형태의 불교 미디어아트를 제작했다.

불교회화실 영상은 상시 만나볼 수 있으며, 괘불 미디어아트는 매시간 30분 간격으로 상영된다. 단, 괘불전 개최 기간에는 상영되지 않는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영상 제작으로 불교미술의 아름다움과 생동감,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전하고자 한다"면서 "불교회화 영상을 통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으로서 불교회화가 가진 예술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나아가 코로나 시기에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난문화재 '선의취득' 조항 보완되나

유정주 의원 등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도난문화재라도 장물임을 모른 채 소유했다면 '선의취득'으로 인정해 몰수하지 않았던 현행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도난문화재이지만 공소시효 10년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했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소시효를 늘리는 법 개정도 이뤄진다.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13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4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그 출처 및 취득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선의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문화재 몰수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25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그간 도난문화재의 선의취득 예외와 공소시효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선의취득에 대한 입증요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고, 10년이라는 짧은 공소시효로 시효가 끝난 뒤 유통시키는 사례가 빈번해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화재 범죄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문화재보호법 개정 추진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오심 스님은 "선의취득 조항 강화와 공소시효 확대는 모두 도난문화재 환수와 매매 방지를 위해 꼭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도난문화재는 불교 성보일 경우가 많다. 성보는 신앙과 예경의 대상으로 매매물이 아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문화재 도난 범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갑사 대웅전·대곡사 범종루 '보물' 승격된다

문화재청 26일 지정 예고
"17세기 건축양식 계승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지정예고된 갑사 대웅전(사진 왼쪽)과 대곡사 범종루(사진 오른쪽)의 모습.

17세기에 건립된 사찰 전각들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충남도 유형문화재 '공주 갑사 대웅전', 경북도 유형문화재 '의성 대곡사 범종루' 등 3건의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1월 26일 밝혔다.

공주 갑사 대웅전은 정유재란 이후 갑사에서 가장 먼저 재건된 건축물 중 하나이며, 건립연대는 17세기 초로 확인된다.

실제 갑사 대웅전은 17세기 전환기 건축의 특징을 지닌다. 정면 5칸, 옆면 3칸의 맞배집의 구성인데, 정면이 5칸이면서 맞배지붕을 한 사례는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또한 정면과 배면 공포의 형식이 동일하고, 기둥 간격이 정면 중앙 3칸이 12척, 측면과 나머지 주칸은 8척으로 나타나 기둥을 일정한 간격으로 간결하게 배치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갑사 대웅전은 17세기에 지어진 다포계 맞배집의 전형적인 형식을 공유하면서 조선 후기의 건축적 경향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의성 대곡사 범종루는 〈대곡사 창건 전후 사적기〉의 기록을 통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병화로 전소돼 17세기 중·후반인 1644년에서 1683년 사이에 중창되었다고 전해진다.

대곡사 범종루는 정면 3칸, 옆면 3칸의 2층 누각 건물으로 기존에 남아 있는 누각 건축 중에서도 이른 시기인 17세기 전반의 특징을 가진다.

대곡사 범종루의 특징은 '2단의 보'이다. 일반적으로 대들보는 단일부재로 사용되나 대곡사 범종루는 같은 크기의 부재가 2단으로 걸려 있다.

문화재청은 "대곡사 범종루는 의성지역의 불교사찰이 부흥하기 시작한 17세기의 양식적 변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누각 건축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공주 갑사 대웅전·의성 대곡사 범종루 등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출강 및 통신 2021학년도 30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30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역량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미디어 통신강좌)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1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